

 금융위원회	<div style="text-align: center;"> <h1>보 도 자 료</h1> </div>				
 금융감독원	보도	2021.5.3.(월) 조간	배포	2021.4.30.(금)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2100-2640)	담 당 자	현지은 사무관(02-2100-2668) 홍상준 사무관(02-2100-2661) 홍연제 사무관(02-2100-266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주 현(02-3145-6700)		이 상 민 팀장 (02-3145-6730)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 김 정 태(02-3145-7690)		박 재 영 팀장 (02-3145-76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지 천 삼(02-3774-9002)		공 도 현 부장 (02-3774-410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신 동 준(02-2003-9800)		이 명 진 부장 (02-2003-981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이 봉 현(02-2003-9014)		최 인 규 부장 (02-2003-9390)

제 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 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당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3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 ◆ **암행점검** 연간 10건 → **40건 이상**, **일제점검** 연간 300여건 → **600여건**으로 확대하여 불법·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1. 추진배경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法 §101)
-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 신고업자 수(개) : ('97) 54 → ('10) 422 → ('15) 959 → ('18) 2,032 → ('20) 2,122

-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 '17.2월 의무교육·직권말소권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9.7월부터 시행 중

-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 금감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1Q) 663

-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자본연, 외부전문가 등 / '21.3~4월 중 운영

2.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중시

- (안내강화)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 보도자료, 웹툰,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 교육에 반영 및 정기적(연2회)으로 주요 적발사례 배포·안내

-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 불법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사례 >

불법

VIP 상담
서비스
[미등록자문]

○○업체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 1:1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개별상담 진행
→ 제시하였던 0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불법

카피
트레이딩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불법

AI주식
자동매매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투자자의 투자판단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프로그램

법개정

□ (양방향 채널 차단)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것입니다.

*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가능

즉시

□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유료회원제(예: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시(직접적 대가성 불명확)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단순 광고수입 ➡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

1:1 개별상담 ➡ 투자자문업

<제도개선시>
채팅방 개설 ➡ 투자자문업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 **(진입)**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 추가

- **(영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됩니다.

< 표시 문구 예시 >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또한, ①**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②**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③**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퇴출)**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현재는 대표자만 제한)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암행점검 확대)**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 적발

- **(일제점검 강화)**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건 → 6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일제점검 341건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48건 적발(중복적발 5건 포함)

- **(정기적 직권말소)**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9.10월 595개사, '20.4월 97개사 직권말소 / '21년 상반기 중 직권말소 예정

- **(온라인채널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참고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1.3월 기재포)

[참고3] 카드 뉴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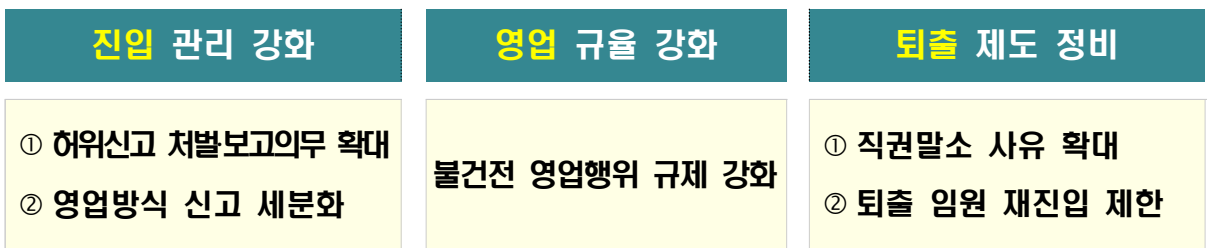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 소지를 사전 차단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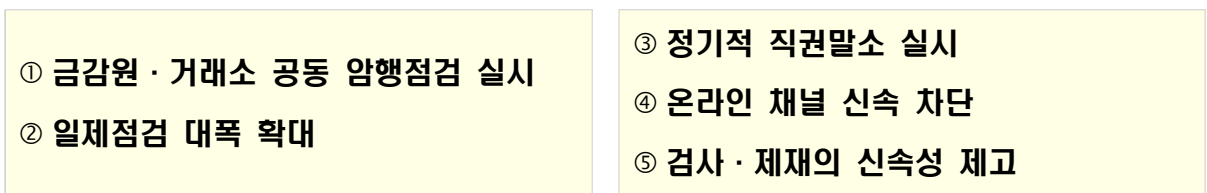
◆ 합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역 명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쏘단계 관리·감독 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00%'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로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 <http://fine.fss.or.kr>

□ 자칫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운영자가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1:1 특별상담,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이는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그만!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자문업 비교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진입	신고 (영업요건에 대한 심사 없음)	등록 (등록요건에 대해 심사)
명칭	OO투자클럽, OO인베스트 OO스타, OO주식연구소 (투자자문이란 명칭 사용 금지)	OO투자자문
영업방식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자문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자문 서비스 제공	일대일(1:1) 방식 투자자문 *개별투자자별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 1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영업방식

주식리딩방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캠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유튜브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증권방송	케이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주식종목, 투자방향 등을 조언하는 강연을 하고, 연락처·업체명 등을 노출하여 유료회원 모집

- 2 -

문제는 투자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만큼
불법·불건전 영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진입·영업·퇴출 전단계의 관리·감독 및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 3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 소지를 사전 차단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관리
- 합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역 명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전단계 관리·감독 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 4 -

1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 **투자자문업 등록**
- 일방향 채널 활용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투자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메세지 또는 알림톡 등)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등록 기준

단순 광고수입 →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

1:1 개별상담 → 투자자문업

- 5 -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영업방식 신고 세분화

현행	홈페이지	방송	기타
개선 (예시)	① 공식 홈페이지 ② 카페, 블로그 등	① 온라인 실시간 방송 ② 기타 온라인 동영상 ③ TV, 케이블 채널 등	① 모바일 앱(신설)

※ 미신고·허위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 규율 강화

광고,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메인페이지, 영상자막 등에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와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의무화

✓ 퇴출 제도 정비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받은 경우 퇴출

- 6 -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합동
암행점검



연간 600건
일제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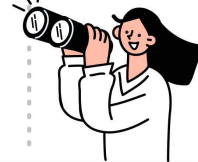
정기적인
직권말소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검사·제재는
더 빠르게



- 7 -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을 개정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